

News

코로나로 지연되는 우리금융 민영화...예보 "올해내 매각 고집 않겠다"

이데일리

금융당국은 매각을 통한 신속한 민영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완전 민영화' 작업이 주가에 발목이 잡혀... 매각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주가가 1만원은 넘어서야 매각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

김기환 KB금융 CFO "중간배당 도입,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어"

뉴스1

김기환 KB금융지주 CFO가 중간 배당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혀... 배당성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공격적인 배당확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도...

코로나에 '디지털화폐' 속도전... 한국, 내년 시범테스트

국민일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 내... 한국도 내년에 파일럿 테스트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서두르는 중...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물 현금 사용에서 벗어나 대체 결제수단이나 민간 가상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금제동 걸렸던 은행 신차대출, 다시 상승세... 주담대 규제 대안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의 오토론 실적이 올해 다시 상승세를 보여...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인하와 자동차사들의 내수 판매 확대 등이 주요 원인...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의 지난 9월 신차대출 취급액은 1460억원으로 지난해 5월(1732억원) 수준으로 회복...

"IFRS17 美·日도 도입 안 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IFRS17과 K-ICS의 시행시기를 늦춰줬음에도, 보험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 자본확충 부담은 여전히 때문...
IFRS17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미국, 일본 등은 자국의 회계기준을 고수...

은행보다 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2.04%

연합뉴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부쩍 증가... 일부 보험사가 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를 제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2.41~3.08%에 분포...
올해 들어 보험사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며 최저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

증권사發 달러화예금 급감...9월 외화예금 31억 감소해 7개월 만에 줄어

글로벌이코노믹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불안과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어나던 거주자 외화예금이 7개월 만에 줄어...
"달러화의 경우 일부 기업의 결제자금 수요, 증권사의 해외자금 예치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로 준비중"...수정안 유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준 수정안을 고수...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